

#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 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이 이야기

권대희

중국 시안에서 ## 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 신들이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저렴한 약 값과 국가 생활 보조금 그리고 퇴직 연금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급이 되어져 그나마 한국처럼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59세까지 선생님이로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리쫡학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0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리 선생님은 퇴임 후 5~6년간은 소일거리를 하다가 집 근처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곳에 경비 비슷하게 재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던 선생님이요, 특히 학교경력이 있어서 유치원 경비로 다시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 다시 평소 했던 일과 관련되는 업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늙었다고 62세 전에 냉혹하게 몰아내는 경쟁 사회는 아직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노후를 걱정하면서 일자리 찾으려고 돌아 다니는 무책임한 사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리 선생님은 저의 후배의 아버님으로 1년에 1~2회정도 상견례가 있는 사이입니다. 리 선생도 저는 친분이 있어서 가끔 병원에 들러서 건강 상담을 받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한국 형님 ! 병원에 계시나요?”

“쇼리이군.......병원에 있네”

“그러면 저와 아버님이 오후 2시에 방문 하겠습니다”

“알겠네....언제든지 환영하네”

중국 중의 병원의 특징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의의 원칙은 “양생=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무조건 오침을 할 수 있는 2시간의 점심시간을 줍니다. 대형 중의병원(대학병원 규모)에 가도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저 또한 30분간 “장자와 공자”님들을 만나는 맛깔스러운 오침을 즐기고 일어나서 오후 진료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되나요?”

“올라오세요”

리씨 가족과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녹차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반가운 얼굴과 다르게 이

선생님께서는 CT사진을 돌려이었습니다. 좋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씩 장을 잡았지”

“리 선생님. 저에게 사진을 주시겠나요?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퇴임하고 변화도

성격자체가 조용한 분이어서 말없이 진찰 서류들을 넘겨주시고 앞에 놓여있는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소견서를 보면서 “폐암 그것도 소 폐포 암의 3기”라는 의사소견서를 읽고 자료들을 다시 넣어서 리 선생님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리 선생님을 보면서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잠시 진료시간이 2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환자분들은 다른 닥터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저는 다시 리 선생 앞에 앉았습니다. “없는데…….”

저는 진료실에는 진료하는 닥터 책상 말고 환자와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 듣고 있던, 쇼 리가 대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리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지 않았나요?” “저의 아버님이 매일 동쪽에 있는

쇼리 말에 이 선생님은 약간 변명 하는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퇴임 이후 새로운 유치원에 출근 전까지…약 10년 이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지”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절약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돈 들어가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보험이 없으면 정기 검사는 개인 부담이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흉부CT 한번 검사하는데 인민비 8000원(한화 150만원)정도 입니다. 한달 월급이 3~4000원(한화 70~80만원)정도 계산을 하면 치료비가 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 검사하려면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나이 들면 놀려 다니는 것이지……”

“지금 담배를 피우시나요?” “피우신다 공계라고……매일 피우니까……그러나 담배를 피우

“학교에 일 할 때는 조금 피웠는데…퇴직하면서 공터에서 노인들과 놀면서 10년간 피운 담배가 일하면서 40년간 피운 담배 보다 많았던 것 같네, 집에 노는 것이 건강에도

겠나요? “혹시 물에 싸놓아 잡아서 사살한 건가요? 쾅어 툼년 갑시었으께, 금까 찰개 시겜이 적네요...”

나를 쳐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이야기 하는 소리를 보면서 저는 살짝 웃으면서 리 선생님을 보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맛있는데…….” “아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소리 잘 자라 뭇 할았 나요? ”……그리 폐암 발생 하 조 환력 발전 췌진 췌거 하 뽐니다.

“알았습니 라 세 먼 자 를 가 세 용 하 뽐 나 마 조 아 이 없 는 정 으 생 남 알 소 하 습 니 제 는

“저는 리 집안 사람들이 공자의 고향 “제남”에서 살다가 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 ~~명~~이 러 고 뽐니다”……………~~만~~인 지 만 영 왕 으 내 를 가 리 뽐 습 니 ~~하~~이 세 먼 자 를 뽐

“과찬 이 말 씁 습 니 다 ” 그 물 은 발 전 소 에 서 냉 각 담 과 분 진 을 제 거 한 물 을 하 천 에 방 류 하 기 전 에 모 아

“제가 폐암과 직접적인 상관없는 생활습관 등의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암에 발병 원인을 찾아내면서 근본적으로 암의 진행을 차단 하면서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습관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해주셔 ~~하~~ 습 니 다 ~~뽐~~ 니 다 그 리 고 불 어 불 방 사 하 여 오염 농 도 를 눈 으 로 체크 하 는 시스템 으 로 만 방 류 장

저의 이야기에 이해 된다는 표정으로 이 선생님이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 심심도 하고 낯시터에 가면 친구들과 마작하고 술도 한잔하고 해서… 편안하게 담배도 피고…사실 집에서 담배 피우기가 어렵거든. 집에는 아들도 ~~있~~ 습 니 다 이 어 췌 치 껴 여 서 ……~~습~~ 니 다 리 정 금 속 담 이 췌 지 관 명 하 게 있 는 데 ……~~습~~ 니 다 하 기 뽐 어 를 “그리고요…~~잡~~ 아 세 용 으 용 하 말 리 조 금 속 과 성 물 잘 세 면 폐 암 을 장 을 제 하 겠 습 니 다 ~~조~~ 금 뽐

“정말 인생이 너무 무료해…그래서 유치원에 출근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무료해서, ~~오~~ 뽐 나 고 부 뽐 세 터 에 ……저 가 세 먼 자 를 뽐 습 니 다 ~~하~~ 습 니 다 ~~하~~ 습 니 다 ~~하~~ 습 니 다

“혹시 폐암 전 소 앓은 거가요?”……………“그 리 담 배 을 담 으 려 뽐 단 으 를 기 가 지 니 담 배 는

“엥~~어떻게 ~~하~~ 앓 아 어 ? ” 발 전 소 에 서 운 영 하 왕 어 장 에 는 심 통 앓 껴 뽐 조 건 제 거 하 는 기 계 에 서 “아이쿠~~나오는 중금속과 세 먼 지 를 먹고 자 라 불 어 불 짜 라 고 어른 들 이 잡 아 시 껴 었 으 니 …..

“왜~~~~~”그 리 고 지 역 공 기 도 좋 은 데 고 곳 에 서 술 뽐 독 은 개 시 면 서 ~~하~~ 뽐 뽐 우 고 ……중금속



열심히 아예 내편에 넘어가게 하려 했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내 모습이 저를 보고 있는 리 선생의 눈에서 반짝거렸다.

이 선생의 말에는 저는 소리를 쳐다보았고, 소리는 약간은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버지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조용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안하는 저의 입장에서 도가장 부담없이 순리대로 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한자

“사실 내 아들은 자랑스럽지만, 개인사업을 한다고 몇 년간 다니던 국가직원(공무원)에서 나와서 방향을 하는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꼭 살아야 되네”입니다.

저는 리 선생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 속에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도 아버지를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진료실에 미안한 감정이 흐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이 선생님의

목소리께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치료하신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말로 안 좋아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해왔는데 내가 태어난 중국도 다 이해 못해서 중국 여행을 하고 싶네, 평생 같이 살아 준 사랑하는 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행을 하고 싶네 리 선생님이네. 하지만 세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배 50,000개가 저소반을

나와 소리와 리 선생의 부인은 리 선생의 말씀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을 마친 선생님은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으키면 저 세포가 다시 DNA 복사와정에 들어나오지 않아요. 나는

“평생 삶을 같이 살아준 부인을 위하여 같이 하는 여행을 위해서는 내가 꼭 건강해져야 되네... 체포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통하여 들어오는 화학제품과 호흡기기관으로 들어오는

“사랑하는 부인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 다녀오게 하십시오. 리 선생님의 말을 하려 했을 때 마리스의 하마에 200개 이상 세포를 리 선생님이 음식물에

삶에 뚜렷한 목적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정신면역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면역세포(NK세포)의 활성성을 3~5배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리 선생님처럼 엔돌핀보다 200배 더 강한 디아-엔돌핀(감동의 에너지)를 만들어

했으면 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나이도 있어서 억지로 수술과 항암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인터루킨-1과 6번이 증대되어 사이클로옥시지나제-2 (COX-2)라고하는 염증성 효소의 생성을 증가 시키게 됩니다. COX-2수치가 높은 암환자는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COX-2은 종양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종양에 부착되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조건에서 수술과 항암을 받지 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일 경우는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리 선생님은 앞에 음식과 운동 자체만 조절을 해도 3년안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잠시 후 진료실에 있는 유엠 물을 빈 잔에 따르면서 ...다시 리 선생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 선생님 두 번째는 영-정신-육체가 연결되어지는 면역학 중심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절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 한 것입니다. 정상 세포가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지, 호르몬 또는 노화를 통하여 부실해진 장기에 의하여 발생을 했든지...모든 것은 내부적인 영향이 가장 깊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정신-육체면역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영의 면역학 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를 갖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뜻으로 마음을 다스리는것을 정신면역학 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 운동 입니다. 근육 운동과 심폐 운동 없이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에 3KG입니다. 그러나 심장의 펌프와 글루튀라는 진공이 존재하여 40.000KM 혈관이 돌아다니는데 어렵지 않지만 6KG에 해당하는 림프는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관도 수 만km가 넘어가는데 펌프가 없습니다. 이런 림프액은 우리 몸에 면역과 죽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문제와 60조세포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이가 일어나는 것 입니다.”

잠시 저는 책장 사이에 있는 “기적의물 생명의 물”의 번역본을 꺼내서 이 선생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앞에 놓여 있는 유엠 돌로 만들어진 유엠 물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말을 시작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돌은 일반적인 세라믹 돌이 아닙니다. 이름은 유엠 이라고 합니다. 일종에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방금 드린 책에는 유엠에 대하여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엠을 개발하신 김현원교수님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책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 보시면 많은 부분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책 속의 내용 중에 이 선생님이 드시어야 하는 돌은 “p53정보가 담겨있는 정보 유엠”이라는 정보 유엠 물 입니다. 책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정보 유엠를 통하여 만들어진 물들은 우리 몸에 돌아 다니면서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로 유도 한다는 것 입니다.”

약제실에서 가지고 온 유엠 정보 세라믹과 종양카드를 이선생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복용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유엠 4개를 1000ml 유리병에 넣어서 음용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유효기간이지만 물에 이 물질과 산화 과정 속에서 정보력이 떨어 질 수가 있으니. 2개월에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 2000~3000cc 음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유엠도 별도로 드립니다. 이것은 식사용도와 국물을 만들 때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처럼 생긴 이것은 공간에너지를 통하여 종양 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에너지 정보가 들어간 것 입니다. 설명은 책에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요. 이것을 핸드폰 뒤쪽에 그리고 베게 밑과 냉장고에 부치시면 됩니다 ”



이 선생님의 핸드폰 뒤를 열어 정보카드를 넣고 다시 핸드폰을 이 선생님에게 돌려 주면서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내용은 암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음식방법과 운동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기본적으로 설탕과 우유, 고기 단백질은 절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 한 개의 크기를 서안축구장(잠실운동장보다는 약간 작다) 크기로 기준을 하면 고기 단백질의 100만개 단위세포가 몸으로 들어 올 때는 서안축구장 만한 세포입장에서 보면 달과 같은 크기의 단백질이 세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세포에게는 달처럼 엄청난 크기의 영양제(독)로 생각을 해보시면 고기 단백질이 암에게는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그러니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겠습니까?. 설탕 한 톨도 달 정도의 크기 입니다. 그러니 3가지는 절대 금지 중의 금지이고 나머지 음식도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방법은 긴 호흡방식 입니다. 암세포는 저 산소와 저 체온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뼉치기”를 이용하는 림과 운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에게 직접 손뼉치기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에게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호흡과 손을 올리는 방법...내리면서 호흡하는 방법...등 처음에는 손뼉과 호흡의 박자가 꼬여서 난색을 표했지만 5분이 지나서 올바른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물방식 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이와 볼펜을 넘겨주면서 소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 녹음장치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하고. 여기 종이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듣다 보면 빠진 것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으니. 종이와 볼펜을 자네가 가지지 말고 아버님에게 건너주게. 내가보니 자네 보다 아버님이 더 중국말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

“ㅋㅋㅋㅋㅋ...형님.....한국사람에게 중국 말 못 한다고 말을 들으니 조금 그렇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리들은 쇼리의 어색 말투와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행동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잠시 진료실은 웃음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암 환우에게 긴장은 가장 안 좋은 생활습관이기도 합니다.

“자~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에 산소와 수소라는 기체를 넣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암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인 저 산소호흡에 해당계 세포 호흡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즉 암세포는 해당계 세포의 무산소 호흡을 통하여 젖산 발효를 통하여 에너지 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돌려서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수소를 통하여 가수분해와 몸에 활성산소의 자유스러운 전자를 안정화 시켜서 염증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서안에 공기 중에는 산소와 수소에 오염도 높고, 산소 양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수소훈증” “산소훈증”으로 치료 진행을 하겠습니다. 1일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6~10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비타민b17요법과 엑시아 차(복용시 약들과 1시간 이상 간격 필요). 장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내 염증을 제거하는 막스거슨 박사의 커피관장과 아채스프요법을 진행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부족한 미네랄과 영양분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셀레늄.B3.종합비타민B군(마그네슘과 아연 염산이 포함된 제품).

마지막으로 폐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폐 세포들의 활동성을 활발하게 해주는 중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불감초 60g.곤포.해조.상피.하고초.각 15g.황금.산치자.연교각 9g. 금은화 12g.생석고 30g으로 일일2회 주 5회. 주 2회 휴식하는

방식으로 개월간 복용합니다. 정유엔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활지만 수소 혼증기”은 흡기를 통하여 직접 폐와 뇌, 혈액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중에는 판매하는 것은 서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던 이 선생님은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서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광고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네 내가 추천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에 친구들과 오염된 낚시 물에 음식을 조심하시고, 중금속 오염이 많은 지역 피해에입니다. 연구소에 산 채로 복용하고 제품으로 교환과 긴 조메에 떨어진

“알겠네... 그래도 내가 40년간 교편을 잡고 일을 하던 성격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성격이 대나무 같거든.....” 결과들이 있으니 이 제품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네”

조용히 옆에 있던 소리가 아버지의 말을 똑 던지는 씩으로 말을 하면서 진료실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있나요”

“늬은에 나무지.....” 핵심은 거리입니다. 먹는 것은 00년 전을 생각하면서 식단을 들어가면 “하하하하하” 이상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식품 회사에서 만든 가공 제품과 향신료는 방부제와 “하하하하하” 할 수 없는 화학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사용하지 않게 다리를 다룰 것입니다. 스카이를 등에서 가져와 아버지를 안아주는

“암에서 가장 큰 장애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님과 사업 이야기와 가족들간에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 그러다 보면 아버님은 고독하지 않고, 자네는 아버지께 해탈고..... 어떤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환기를 하면 근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으로

“형님... 앞으로 아버님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라는 핑계로 네 월월 아버님과 가족을 하오 중하게 용하겠습니다. 허우적쩍 면도 구뎡을 하십시오고요”

소리에 진지한 이야기에 이 선생님이 얼굴은 벌써부터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형님이 이야기 약들은 직구로 구입이 가능한데, 수소 혼증기체는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하하하.....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그리고 아침 해독주스에 살구분말을 8g 추가 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동충하초와 한약제 분말 된 것)를 일일3회 1회에 15g씩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메모하던 이 선생님은 많아지는 약 설명을 들으면서 말쑼을 했습니다.

“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에 해당하는 것은 3개월간만 조절하시면 간과 폐 쪽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입니다.”

2018년 3월의 봄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희망으로 시작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암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치료하는데 한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의 4월에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서안에 공기도 안 좋고 해서 잠시 해남도에 있는 친구 집에 요양하러 가려고 하는데, 물론 부인하고 같이 가서 직접 음식을 해먹으니 음식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다녀오세요……..싱싱한 해남도의 해산물에 육심내시면 절대 얹됩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수소기계와 정보 유엠 그리고 정보카드도 잘 들고 다니시고요”

“정보유엠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해남도에 친구가 파킨스가 있어서 수소기계로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데…좋은지”

“좋은 생각 입니다. 그리고 뇌에 관계 되어지는 정보유엠도 가져가서 친구분과 우정을 나누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내가 오후에 병원에 잠시 들리겠네. 뇌 질환에 좋은 정보유엠과 카드를 준비해주게나 “



“고맙습니다. 이 돌덩어리(뇌 정보유엠)와 수소 훈증기가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 닥터가 처방해준 미네랄과 비타민종류가 대단하네…….”

“하늘이 팽 선생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그래서 말인데 온 김에 뇌 정보유엠을 몇 개 구입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네”

“팽 선생님은 사업가 인가 봅니다”

“하하하하…무슨 사업가……저는 해군으로 정년 퇴임해서 퇴직금이 많이 모여있고, 군에 있을 때 상해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 있는데, 자리가 좋아서 임대료를 조금 넉넉하게 받고 있어서…이번에 좋은 일을 친구들에게 하고 싶어서요. 정보유엠도 널리 홍보도 하고 싶구요”

중국에서는 아파트 정책중에 하나가 땅을 소유했던 농민과 지역 도시민들에게 개발시 아파트를 식구와 토지면적으로 해서 몇 개를 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비용도 넉넉해서 불평, 불만이 그만큼 적습니다.

한국처럼 야박(?)하게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임대 하면 소득이 좋습니다. 상해에는 보통 노인들이 집을 3~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수입원들이 평균 2만원정도(인민비=한화 350만원)….중국 물가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돈의 가치성으로 거의 2천만원에 해당하는 돈 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웃음이 오가는 사이에 이 선생님의 진료카드를 넘겨 받은 저는 자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권 닥터가 팽 선생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분 소식을 가득 만들어 주었네…그 어렵다는



폐암을 어떻게 치료할지…….너무 감사하네.정기작동되는 환경,스트레스를 받을 때 포도당을 제치지  
저는 자료를 가져주면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암이 늦었으니 암을 일부분으로만 100개 정도만  
“해남도가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단 시간 내에 만들었네요…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생각하시면 다시는 암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영혼  
될것입니다.정상세포의부산물입니다.그래서우리는암을이기는약이아니고면역력을높이는  
잠시는 저는 이 선생님과 팽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양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의식(생  
각)에 의하여 유지 되어지는 자율신경에 문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애착, 소유, 분  
노,억눌림……등 이러한 스트레스의 작용으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와 잘못된 식사습관,  
화학제품에 익숙해진 현대문명에 오염으로부터 오는 것 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삶에 목적성과 언제 가는 삶이 끝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삶에  
대응하는게 중요해요.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생활습관을 바꾸는 것.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가족,

“그것은 우리 나이가 되면 터득하는 삶의 도 인데….젊은 사람이 대단하군먼……”  
선생님말씀을 듣고 있으면 감동했습니다.친구들이 하던 일들이나 미미한 일들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팽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권 닥터는 우리 같은 환자들 때문에 겹은 젊어도  
속은 모두타서 늙은 우리와 같을 것 같은데…….”언어지는 건강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하” 잠시 저는 바라보는 어른들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만들면서 말을 정리 했습니다

“호호호호호”암세포도 사랑하고,신경세포도 사랑하면서 늘~~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어  
칭찬인지, 농담이 모르는 이야기와 사심 없는 웃음에 진료실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사실 저의 진료실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저는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다시정보유엔물에대하여보충을해주고말을했습니다.주시면세상이한결살맛날것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CT에서는 사라져 보여도 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저는 암은 종양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잘못된 정상세포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병원문을 나가는 두분 어른들의 밝은 미소로 병원 정문까지 환송하고 저는 하늘을 쳐다 봤습니다. 맑은 하늘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물 파랑새에게는 언제나 밝음이 있다는 것이 항상 기쁨 입니다. 도시에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땃글7

박정원(서울)18.07.31 21:01 선생님 글을 볼때마다 저를 돌아보게도 되고 용기와 자신감도 다시금 생기는것 같습니다^^

손뼉치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마위쪽으로 손을 올리고 치킨하는데요 호흡과 함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림프운동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동영상이 있음 많은 도움이 될거같은데요 어렵겠지요? 박정란(안양)18.07.30 12:22 선생님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wjwj2485@naver.com으로 메일주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원(서울)18.08.01 07:00 이멜 보냈어요. 박정란(안양)18.08.01 11:30 @김현원(서울)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권 선생님 메일이 현재 휴면 상태라 발송이 안되어 휴면 해제 후 재 발송해야 될듯싶습니다. 이송하(서울)18.07.31 19:09 그간 읽은 중에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2(포항)18.09.20 09:17 항상 감동입니다. 시안의 허준이십니다. 권대희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